

■ 영어 말하기 대회 최고상 광주 송일고 김소라양의 3단계 공부법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며, 운명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 같아요.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맞아요.”

자기개발 전문 강사의 말이 아니다. 지난 5월 세계에 능교협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고등부 최고상을 받은 김소라(17·광주 송일고 2년)양의 이야기다.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서일까. 말하는 것이 거침없다. 외국에서 살아본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원어민에게 과외를 받은 일조차 없는 김양이 전국의 내로라하는 '영어 고수'들을 제치고 상을 받은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1. 목표부터 확실히 세워라

외교관 꿈 이루려 반기문 총장 '역할 모델'로 정해 공부

외교관이 꿈인 김양은 외교관이 되기 위한 '역할 모델'로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정했다. 지난해 반 사무총장의 당선에 이슈화됐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해 미국을 방문했던 일화를 접했다.

이 때부터 김양은 '영어 말하기 대회'가 어디서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 외국어고등학교 게시판에서 공고를 발견한 뒤 고민할 것 없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때가 지난 3월이다. 원고도 혼자 썼고, 연습도 혼자 했다.

선생님이나 학생들 앞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어보고 지적 사항을

하나씩 고쳐나갔다. 결과는 최고상의 바로 아래인 최우수상. 하지만 김양은 만족할 수 없었다. 여류방송 때 미국으로 연수를 떠날 수 있는 자격은 최고상에게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 사무총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다시 도전했고, 원하던 '미국행 티켓'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결국 반 사무총장처럼 오는 8월 미국으로 떠날 수 있게 됐다. '김치'와 '기무치'의 차이를 설명하고,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의 2분30분짜리 원고였다. 말하기 전 '김치 주제'를 부른 것이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자평을 내놓았다.

김진만 교사가 본 김소라양



스스로 목표 정하고
적극성·활발함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김소라양을 1학년 때부터 2년째 가르치고 있는 영어 선생님 김진만(37) 교사는 김양의 가장 큰 장점으로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을 꼽았다. 게다가 성실한 노력도 빠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의 분석은 전국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혼자 참가해 최우수상이라는 상을 받았지만, 목표했던 미국 연수를 놓쳤기 때문에 재도전한 끝에 성공한 이번 '말하기 대회'의 일화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김 교사는 "최우수상을 받았던 지난 대회 때 소라는 유령 가면까지 준비해 발표를 했고, 이번에는 노래를 불러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점을 보면 전략적으로도 다른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5월에는 특히 스승의날이나 교내 체육대회 등 행사들이 많았지만 혼자서 대회 준비를 했다는 것도 김 교사가 김양에게 놀란 점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한 다음 계획대로 실천해나간 것이다.

김 교사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적극성 또는 활발함인데 소라는 이것들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며 "또한 모의고사 오답 한 두개에 낙심하지 않는 등 성격에 얽매지 않고 골기려하는 자세는 높이 칭찬하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최현해기자 choi@kwangju.co.kr

2. 생활속에 학습도구 있다

CNN 계속 듣고 팝송 따라부르며 문장·문법 자연스럽게 익혀

김양이 영어를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영어 학습지를 통해서다. 이후 6학년 때까지 성실하게 진도를 따랐고, 테이프를 이용한 듣기와 말하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영어가 더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권유로 듣기 시작한 KBS 라디오의 아침 프로그램 '굿모닝 팝스'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듣는다. 교재도 함께 봐가며 그날 그날 강조했던 표현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또 선생님이 권했던 방법이 팝송 듣기와 CNN 보기. 영어 배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중학교 때부터 김양

은 일어나자마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CNN 방송을 그냥 틀어놓았다. 그렇게 한 달 가량이 지나자 배운 단어들 하나씩 들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70% 가량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김양은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 MP3로 팝송을 듣는다. 좋아하는 가수 웨스트라이프나 백스트리트보이스, 머라이어 캐리 등의 노래를 그냥 듣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따라부르고 문장을 외우면서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백스트리트보이스의 'As long as you love me'를 통해 'as~as~'(...만큼 ~한) 구문의 용법을 정확히 알게되는 식이다.

3. 틀려도 말하고 또 말하라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발표 연습하며 자신감 키워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나 외교 학생들도 참가하는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해서는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다. 김양은 "처음 출전했을때 걱정도 많이 했고 실제로 조금 위압감을 느꼈는데, 두 번째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말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없이 혼자 대회를 치렀는데도 전혀 떨리지 않았단다.

대회 일주일 전 김양은 원고를 완성한 뒤 영어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몇몇 단어를 교정받았다. 그 때부터는 계속 읽으면서 외우기 시작했다. 다 외운 후에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앞에서 연습을 했다. 그래야 잘못된 제스처나 발음 등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점은 보너스다. 이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

는 것이 더 힘든 법이다.

김양은 외교관이 돼 중국이나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의식을 바로 잡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한다. '반기문 모델'을 따라 하나의 꿈을 이룬 김양의 새로운 꿈은 서울대 입학이다. 거침없는 김양에게 불가능한 꿈은 없어 보인다.

"영문과에 입학해 부전공으로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지금은 임시 준비 때문에 영어 원서 읽을 시간이 없는데 대학가면 영어 소설을 많이 읽을 생각이에요. 고급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문학 서적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최현해기자 choi@kwangju.co.kr



movies

이제 영화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야 놀자!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원도약국사거리 ♥에매1544-0600

M관	슈렉3 (15세/한글자막)	최고급관
2관	팩토리 걸 (18세)/슈렉3 (15세/한글자막)	
3관	슈렉3 (15세/한글자막)	
4관	밀양 (15세)	
5관	황진이 (15세)	
6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상성-상처받은 도시 (18세)	
7관	쉬트 더 맨 (12세)/메신저-죽은자들 (15세)	
8관	캐리비안의 해적3:세상의 끝에서 (12세)	
9관	황진이 (15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주자장이 편한 극장 —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2관	황진이 (15세)
3관	황진이 (15세)
4관	스파이더맨 3 (12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6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대 <3시간 무료>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향토시각 영화시상 ♥에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우역회관뒷편)

1관	밀양 (15세)
2관	어린이전용관 박물관이 살아있다 (전세)
3관	슈렉3 (전세)
4관	슈렉3 (전세)
5관	스파이더맨3 (12세)/상성-상처받은 도시 (18세)
6관	황진이 (15세)
7관	밀양 (15세)
8관	못말리는 결혼 (15세)/전설의 고향 (12세)
9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12세)
10관	황진이 (15세)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절친리 상영중** 1588-7941
상영원예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메신저 (12세)
2관	밀양 (15세)
3관	슈렉3 (12세)
4관	슈렉3 (12세)
5관	황진이 (15세)
6관	캐리비안 해적 / 황진이 (15세)
7관	데스위터 (15세)
8관	상성-상처받은 도시 (18세)/전설의 고향 (12세)
9관	캐리비안 해적 (12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타블레츠 회원만을 위한 전용청구 미션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캐리비안의 해적 3 (12세)
2관	슈렉3 (12세)
3관	메신저 (15세)
4관	황진이 (15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 3 (12세)
6관	밀양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